

‘컴퓨터 은행알’

최적 학교 배정 모델의 구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연구

전영민

1. 개요

본 연구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, 서울 및 부산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학교 배정의 최적 모델 구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 있는 평가관리를 함으로써 평준화 제도의 성공적인 실효성을 입증하게 된 연구로서 그후 지속적인 입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.

서울 및 부산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이 제도는 전국의 대도시로 확산 실시되어 그간 불균형화되었던 학교들이 새로운 의욕으로 교육에 활기를 띠는 데 커다란 보탬을 준 연구이다.

각 시도별 특성을 살린 최적 배정 모델은 지역적 요소 등을 충분히 감안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구축하였고, 이들 모델 중 일부는 각 시도로 이관한 바 있다.

2. 배경 및 내용

1969학년도 이전만 해도 중학교 입시제도는 과외공부라는 열병으로 인하여, 한참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으로,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담을 주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, 교사들은 과외열풍으로 학교 교육의 부실을 우려해야 했고, 학부형은

학부형대로 과도한 과외비와 우열의 위화감으로 사회 전체가 병을 앓는 듯 하였다. 이에 학교 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입시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.

처음의 중학교 배정업무는 중학교 지원자를 각출신학교에 모아 놓고 번호순으로 미리 만든 학교 기호가 쓰여진 추천알(속칭 은행알)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. 이는 정확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듯하여 지원자나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여론에 우리 KIST 전산실에서 이 업무를 연구하게 된 것이다.

이로부터 시작된 중학교 배정 모델 연구는 정책적인 보완을 거듭해가며 수행하고 있으며, 서울 및 부산 교육청 등의 중학교 배정 모델은 기술 이전을 하였고, KIST의 연구진들에 의해 서만 수행해야 한다는 시도의 업무는 계속 수행중에 있다.

또한 1974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의 평가 및 인문계 고교 배정 모델의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. 서울, 부산에서 시작된 연합고사는 1980년에는 21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어 각 지역마다 특성있는 배정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.

해마다 입시철인 12월부터는 CYBER 시스템이 풀 가동되었으며, 연구원들은 철야를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며 수행해내고 있다. 더구나 이 업무는 백만분의 일이라도 착오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각오 및 강박관념으로 0에서부터 9에 이르는 숫자가 너리에서 벗어나는 때는, 발표를 끝낸 후 각 시도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게 될 때까지이다. 이에 성기수 박사님은 연구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, 거국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셨다.

3. 본 연구가 미친 영향

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, 신속 정확한 평가와 사회의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시작된 본 연구 업무는 정확한 평가 업무를 통하여 문교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되었으며, 또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하여 일선 학교의 장학지도 및 문제 출제를 위한 정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, 교육 정책이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다.

이후 학교 평준화 정책은 대학 입시에까지 여실히 그 실효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, 이제 누구에게나 중·고등학교 입학은 추첨으로 배정한다는 데 매우 익숙해졌다. 이러한 입시환경의 전산화, 나아가 교육의 정상화에 성기수 박사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.